

국민 절대다수 “석유제품 비싸다”

김교훈 의원, 매우 비싸다 64.5% 달해 ... 제조원가 공개해야 83.2%

국민의 90% 이상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열린우리당 김교훈 의원은 20세 이상 남녀 148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조사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, 휘발유를 비롯해 경유, 등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 대해 응답자의 64.5%가 <매우 비싸다>, 32.4%가 <대체로 비싼 편>이라고 말해 96.9%가 석유제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1일 발표했다.

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9.4%가 <매우 못한다>, 20.9%가 <대체로 잘못하고 있다>, 28.1%가 <보통이다>라고 대답했다.

또 석유제품의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.2%가 <원가를 공개해야 한다>, 7.9%가 <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>라고 답했다.

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.8%가 <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>, 6.6%는 <정유사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>라고 답했다.

<화학저널 2005/10/13>